

## SBS의 새로운 30년을 이끈다!

### 다양한 파일럿 출몰이 출격

예능본부와 시사교양본부에서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파일럿들을 만들어 SBS의 새로운 30년을 이끌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에 방송되는 파일럿 두 편을 소개한다.

#### 신개념 퀴즈쇼의 탄생 <정답누설 퀴즈쇼 - 오늘 배송>

토크와 추리에 기부까지 더해진 새로운 퀴즈쇼가 탄생했다. 8월 4일(화) 첫 선을 보인 <정답누설 퀴즈쇼 - 오늘 배송>(연출: 임형택, 안재철/이하 <오늘 배송>)은 생활밀착형 퀴즈를 풀면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한 명의 출연자 '오배송'을 맞추는 신개념 추리 퀴즈쇼다. 퀴즈를 풀어 획득한 물품은 우승자의 이름으로 기부되어 공익적인 성격까지 갖췄다. 패널로는 김종국, 송가인, 소유, 라비, 정세운, 아이즈원 권은비, 이용진, 데프콘이 출연했다. 출연자들은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하는 TV 속 음식-라면 VS 치킨', '최악의 이별 방식-잠수 VS 환승'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만 정답은 알쏭달쏭한 양자택일 문제들을 풀기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미리 정답을 건네받은 '오배송' 김종국과 '오배송'이 누구인지 찾으려는 다른 출연자들이 속고 속이는 추리 전쟁도 펼쳐졌다. 이 치열한 게임에서 MC를 맡은 전현무와 붉은 재치 넘치는 진행으로 중심을 잡았다. '노래방 반주에 맞춰 본인 노래를 부르면 누구 점수가 더 높을까' 하는 문제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김종국과 송가인의 노래 대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덤이다. 문제를 맞힌 인원수만큼 쌓인 기부 물품은 우승자인 정세운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전달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네티즌과 언론들은 "재미와 의미 다 잡았다", "신박하고 재밌다", "퀴즈 풀고, 기부도 하고, 착한 예능이네" 등의 반응으로 새로운 퀴즈쇼의 출현을 반겼다.

새로운 출연자와 문제들로 채운 <오늘 배송>은 8월 11일(화) 밤 8시 55분에 2회가 방송된다.

#### "살아보고 결정하면 안 돼?" <나의 판타집>

시사교양본부가 준비하는 <나의 판타집>(연출: 이근별)은 8월 18일(화)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주당 52시간 근무제도가 정착된 후 사람들은 워라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여파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멋과 기능성 등 자신의 로망을 충족시켜줄 집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이근별 PD는 "<나의 판타집>은 '웃도 입어보고 사고, 차도 시승해 보고 사는데 평소 꿈꾸던 집에 대한 건축적 체험은 미리 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판타집 건축사무소' 소장 직원들은 의뢰인이 평소 갖고 있던 '워너비 하우스'의 조건과 가장 비슷한 집을 찾아낸다. 소개되는 모든 집은 그냥 짝어내듯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지은 집으로 건축적 경험이 가능하다. 의뢰인들은 자신이 꿈꾸던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된다. 박미선이 판타집 건축사무소 소장으로 출연하며, 조세호와 류수영이 소장의 신임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판타집 건축사무소 대리도 출연한다. 또한 건축가 유현준이 판타집 건축사무소의 자문위원으로서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집과 공간에 대한 가치를 탐구한다.

의뢰인으로는 양동근, 이승윤, 허영지가 출연하여 각자 갖고 있는 집에 대한 로망을 말한다. 집에 대한 로망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주는 가운데, 이들의 '판타지의 집' 체험은 그와 유사한 로망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축적 경험에 관한 사회 실험' <나의 판타집>은 8월 18일(화)과 25일(화) 2부작으로 방송된다.



## SBS 파워 FM, 6년 연속 청취율 1위로 '넘사벽' 입증

〈두시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붐붐파워〉,  
〈박소현의 러브게임〉 TOP 8에 포진

SBS 파워FM(107.7MHz)이 2020년 3분기에도 청취율 1위를 지켰다. 2015년 2라운드 이후 6년째로, 청취율 조사가 분기별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22라운드 연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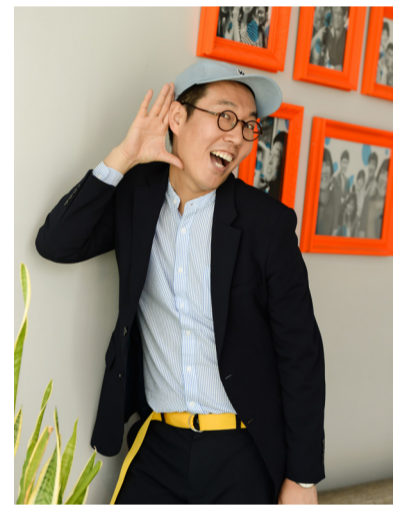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2020년 3라운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 FM은 전연령 청취 점유율 22.2%로 지난 분기 대비 0.3% 상승했다. 또 2위와의 격차는 2분기보다 6.9% 벌어지는 등 안정적으로 1위를 굳혔다.

또한 주요 청취층인 20~49세 청취율 역시 33.7%를 기록하여 2위(14.8%)와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렸다.

프로그램으로는 셀러브리티들의 출연 요청 1위인 〈두시탈출 컬투쇼〉, 연예, 문화, 영어, 상식 등 장르를 넘나들며 파

워 에너지를 전해주는 〈김영철의 파워FM〉, 오후의 나른함을 날려버리는 〈붐붐파워〉, 그리고 언제나 포근하게 청취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박소현의 러브게임〉이 Top 8 안에 포진했다. 〈최화정의 파워타임〉과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역시 TOP 15안에 들어, 기쁨을 함께했다. 특히 지난 6월 러브FM과 파워FM 동시 송출이라는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한 〈붐붐파워〉는 5위를 차지, 청취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라디오 청취율 2020년 3라운드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7일~20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1.8%, 신뢰구간은 95%p다.



## 모비덱스튜디오, 신개념 AI 교감 토크 콘텐츠 〈혼드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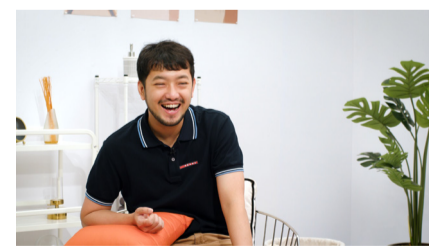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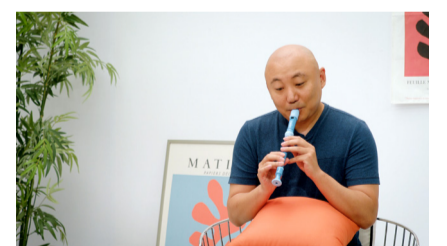
모비덱스튜디오는 7월 29일(수) 인간과 AI(인공지능)가 교감하는 새로운 공감 토크 콘텐츠 〈혼드리〉(연출 옥성아PD)를 공개했다. '혼자 들르는 마음 세탁소(LAUNDRY)'의 줄임말인 '혼드리'는 "당신의 마음을 맞춤 세탁해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AI 세탁기와 게스트가 대화하는 웹 예능 프로그램이다. 인간이 아닌 사물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다른 토크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재미가 기대된다.

MC로는 예능뿐만 아니라 연기자로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성우 서유리가 맡았다. 〈혼드리〉의 AI 목소리를 대신할 서유리는 게스트와의 공감을 끌어낼 대화를 주도하고, 특유의 다양한 목소리 변화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시도에 걸맞게 〈혼드리〉의 게스트 라인업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 김이나, 원더걸스 출신 우혜림이 출연한 데 이어 만화가 주호민과 이말년, 마마무 솔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 나르샤, 래퍼 권와사비가 출연을 확정 지었다.

'시와의 교감'이라는 색다른 콘셉트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혼드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공TV '모비덱'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함께 격려하며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 건강관리실 변영옥 간호사

### SBS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

대학 졸업 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병동 간호사로 5년 정도 근무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그만두었는데, 둘째가 세 살쯤 되었을 때 SBS 간호사 구인 소식을 접했다. 2001년에 입사했으니 만 19년이다.

### 대학병원과 일반 회사 간호사의 차이점은?

대학병원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숨 돌릴 틈이 없다. 나의 간호 행위 하나하나에 환자의 상태나 생명이 영향을 받기에 늘 긴장해야 했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SBS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는 적지만 의료인이나 혼자이다 보니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지켜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 행위나 수칙들을 추적,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때도 있다.

또 입원 환자들은 병원 의료인의 지시에 아주 잘 따르지만,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회사 직원들의 건강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 19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설날 연휴 직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방역 초기에 알코올 손소독기 설치, 보도 취재진과 청경들을 위한 황사마스크 구입, 직원들 대응지침 공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숙지, 그 와중에 대구 신천지 취재진들의 발열 체크와 코로나 검사 등 2월 한 달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다행히 3월 한 달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간호사를 구해줘 방역 업무와 일상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여유를 찾았다.

### 그동안 의심사례로 검사를 받은 케이스는? 또 그중에서 가장 가슴 졸였던 케이스는?

지금까지 총 42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일본 방문 직원의 코로나19 검사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직접 접촉자는 아니었으나 후시모를 가능성 때문에 검사를 의뢰했다. 우리 회사 첫 케이스라 그랬는지 모든 임직원의 시선이 집중돼, 결과 통보를 받은 토요일 낮까지 해당 직원과 나, 모두 맘고생이 심했다. 다행히 음성이었다.

### 의심 환자와 접촉해야 하는 등 회사 안에서는 최전선에 있다. 가족들의 반응은?

초기에는 대구 방문자들의 발열 체크와 코로나 검사 의뢰 등으로나 또한 접촉자가 될 수 있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식사도 따로 했다. 한밤중에도 직원들의 문의 전화 등 긴급한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 가족들 스스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 취재진이나 제작진이 자문을 구해오기도 하나?

물론이다. 대구에서 취재진이 철수하고 돌아온 이후 또다시 대구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직원 어느 누구도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취재진의 열의에 알코올 소독액을 지원해주고 방문 후 철저한 자가격리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는 선으로 물러났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또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때마다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조동찬 차장에게 감사드린다.

### 방송사 간호사끼리 네트워크는 잘 돼 있는지 궁금하다

KBS, MBC, EBS 보건관리자들과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아 왔는데, 이번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스크와 소독액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 직원들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방역 준비에서부터 대응방법까지 세부적인 것을 함께 의논했다.

또한 외주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의심 환자가 나오면 한 방송사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방송사가 영향을 받는다. 이럴 때 네트워크를 풀 가동하여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한다. 무엇보다도 서로 애로사항을 잘 알기에 다투지도 쏟아내고 위로도 하고 힘을 얻는다.

### SBS의 코로나 대응 점수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온 사업장 코로나 방역 자가점검 리스트로 점검해보니 모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구내식당에 테이블 가림막을 설치해 준 총무팀, 또 가림막으로 인한 불편함도 감내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코로나 대응 점수는 백 점이다.

### 사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많이 불편하고 힘들시겠지만, SBS의 방역을 위해 매일 애쓰시는 청경분들과 시설미화 직원들의 수고를 생각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을 멈추고 건강관리를 중단하셨다면, 다시 몸과 마음을 셋업 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도 건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 마부작침 ‘민식이 법이 놓친 것들’ 이달의 방송기자상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민식이 법이 놓친 것들’ 시리즈가 7월 22일(수),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14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미디어 부문을 수상했다.

마부작침은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사 최초로 보호구역 사각지대와 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 교통 약자의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 마부작침은 같은 보도로 7월 14일(화), 방송기자클럽이 수여하는 BJC 2분기 보도상도 받았다.



## ‘선미네 비디오가게’, <맛남의 광장> 이달의 PD상

<SBS스페셜> ‘선미네 비디오가게’(이하 ‘선미네 비디오가게’)와 <맛남의 광장- 완도 편>이 제244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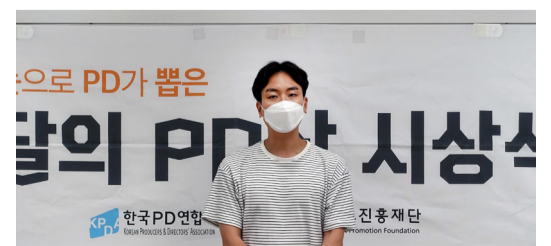
TV 시사교양 특집 부문 수상작인 ‘선미네 비디오가게’(연출: 이한기, 추현검, 작가: 정선년)는 아카이브 다큐 토크쇼로, 3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방송인 박미선의 인생을 돌아봤다. ‘누구의 아내’, 혹은 ‘뛰어난 MC’ 정도로 평가받은 방송인 박미선을 ‘프로 직업인’의 관점에서 조명한 작품으로, 다양한 아카이브 영

상 발굴을 통해 보는 재미까지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V 예능 부문 수상작인 <맛남의 광장- 완도 편>(연출: 이관원, 작가: 황보경)은 다시마 어가를 살리기 위해 완도를 방문한 이야기를 그렸다. “저장고에 2년 치 재고 2000톤이 쌓여 있다”는 다시마 어가의 호소가 담긴 메일을 받고 시작한 방송으로, “농어민의 현실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익적 예능의 장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선미네 비디오 가게’ 이한기 PD, 정선년 작가, 추현검 프리랜서 PD



<맛남의 광장> 박상영 조연출



## 아나운서들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 '스브스 아나운서'



- 이병희 차장(아나운서팀)

올 2월 12일에 문을 연 유튜브 채널 '스브스 아나운서'는 SBS 아나운서들이 주인공입니다. 조명의 뒤편, 사무실에서 제가 20년 넘게 봐 왔던 우리 아나운서들의 끼 넘치는 일상과 숨은 매력을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재미 삼아 찍어 올린 영상이 5개월 만에 80여 개 쌓였고, 구독자 수 8000명, 총 조회 수는 180만 회를 넘겼습니다. 사무실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아나운서 패션 엿보기 <갑자기 패션쇼>, 시청자가 인턴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아나운서 생활을 보여주는 <가상 현실 프로젝트>, 가위바위보, 눈싸움, 끝말잇기 대결의 <무작정 대결> 등, 단순히 브이로그만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상을 제작

하고 있습니다. '스브스아나운서'는 신입부터 종견 아나운서까지 선후배 간의 친근한 모습을 통해 (가령 흥합의 신/신용철 아나운서 편 등) 세대 간의 소통을 보여주고, 사연 코너를 통해 많은 구독자들과도 소통합니다. 삭막함이 가득한 요즘, 웃음이 가득한 아나운서 사무실 분위기를 전하니, 많은 분들이 SBS에 입사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뿌듯합니다.

**이정양님** "스브스는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니고 싶은 회사네요"  
**구구소희님** "스브스아나운서들은 모두 밝으신 듯. 그래서인지 회사 분위기가 늘 좋

**은 것 같아요"**  
**Max Ahn님** "자극과 웃음이 범람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상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보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아나운서로서가 아닌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이야기하기가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촬영, 편집, 자막과 음악 작업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엄지손톱 크기의 '썸네일(thumbnail)'을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체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쓰이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출연만 하던

방송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큰 소득입니다. 또한 우리 팀 식구들이 가까이에서 촬영하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소득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상까지 주셨으니 더욱 보람됩니다. 재량껏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최영주 팀장님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을 도와주신 선후배님들, 완성된 영상을 매번 모니터링해주고 도움말을 주는 박은경, 김선재 아나운서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스브스아나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 영양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



7월 24일(금),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위치한 영양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제구조개발NGO 굿피플 김천수 회장, SBS 성영준 사회공헌담당, 오도창 영양군수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희망TV SBS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농어촌 지

역 아동들을 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놀 권리 향상을 보장하고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짓기 프로젝트를 지속해 왔다. 영양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9번째 결과물이며 현재 경남 함안에도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건립에는 굿피플이 함께했으며 영양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를 재능 기부했다. KCC와 동국제강은 각각 창호와 철근을 기부하며 뜻을 모았다. 완공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대지면적 428㎡, 건축면적 206.18㎡의 지상 2층 규모로, 교육실, 다목적실, 도서실 등을 갖추었다. 센터는 건전한 놀이와 교육·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된다.

## 윤세영 명예회장 부부 2억 기부 -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과 변금옥 여사가 7월 12일(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윤세영 명예회장 부부는 '아너 소사이어티'의 중앙 293호, 중앙 294호 회원이 되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이다. 이번 기부는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미수(米壽: 88세)를 맞고자 한 윤세영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부금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후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 9월,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콘텐츠파트너십팀 박재연 부장이 9월에 안식년을 맞이한다. 박재연 부장은 1991년 8월 SBS에 입사하여 꼭 찬 30년 동안 프로그램 제작에 헌신하였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로 SBS 코미디 전성기의 한 축을 이끌었고 <지식나눔 콘서트 아이러브인>으로 명사 강연

의 붐을 일으켰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의 치열함과 치밀함은 모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매 순간 발휘되는 재치와 위트는 제작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무기였다. <좋은 아침>을 끝으로 안식년을 맞는 박재연 PD에게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